

# 땀 올린 고건號... 정계개편 불 붙이나

## 각계 인사 106명 참여 '희망연대' 출범 "중도개혁세력 연대"...대선행보 본격화

고건 전 총리가 마침내 '희망연대'(희망한국 국민연대)호에 땀을 흘리며 대통령 선거의 바다로 출항했다. 희망연대의 출범은 그동안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면서도 잠행을 계속해 왔던 고건 전 총리의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호남 지역민들의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고건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희망연대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희망을 찾아서 국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발기인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고건 전 총리는 이날 창립 취지문을 통해 "나라를 이끌 나침반과 엔진 모두 제 구실을 모두 잃고 있으며, 4천700만 국민이 타고 있는 대한민국 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과 동력을 잃고 표류 중에 있다"고 비판하고 "세계 10대 선진 강국 진입 등을 위해서는 정치 리더십이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에너지와 결집해나가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박병엽 팬택 계열 부회장, 정희자 전 여성벤처협회 회장, 소설가 박민신 씨, 김재업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발기인 106명을 비롯한 3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희망연대는 총회에서 ▲중장기적 비전 도출을 위한 '희망한국 의제 21'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도의하는 '희망한국 현장교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희망한국 토론

광장' 등 3개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고건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희망연대에 대해 "국민이든 수렴과 대안 모색을 하는 단계이며 새로운 정당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며 "희망연대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정치권에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건 전 총리는 "지난해부터 중도개혁세력 연대의 교감을 넓히는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

겠다"면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과 비공개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고건 전 총리가 이날 희망연대 출범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소에 참배한 자리에서 "바다 이야기 파문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경찰 등 어느 한 곳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정시스템의 고장에 따른 것으로 정책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라고 참여정부에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고건 전 총리의 대선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고건 전 총리가 당분간 '희망연대' 활동에 주력하면서 기존 정치와는 거리를 둔 새로운 정

치적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 뒤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연말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는 고건 전 총리가 기존 정당과의 합종연횡이나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계개편을 적극 주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건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고건 전 총리가 희망연대를 바탕으로 정치권 각 정당과의 접촉을 통해 올 연말께나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도 고건 전 총리와의 채널을 열어두고 민주세력 대연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전총리 등 '희망한국 국민연대' 공동 대표들이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수규(전 서울YMCA 회장), 이영란(숙대 교수), 고건, 이종훈(전 경실련 대표), 양현수(충남대 총장) 공동대표. /연합뉴스

### ■ 고 건의 사람들

고건 전 총리의 자문그룹은 '희망연대'를 비롯 학계, 경제계, 정치계 등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선 희망연대 발기인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이종훈 경실련 전대표, 각계 인사 106명의 참여해 고건 전 총리를 측면 지원할 태세다.

고건 총리가 평소 '공부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래와 경제'는 고건 총리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이세중 전

## 싱크 탱크 '미래와 경제' 800여명 포진 정치권 최인기·신중식·안영근의원 인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대표, 김종수 전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800여명이 포진해 있다.

경제계에서는 김상하 전 대한상의 회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김영환 인터내셔널 대표, 우중국 염피오 대표, 대한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

등이 고건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건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지원사령부'도 주목을 받는다. 김덕봉 전 총리실 공보수석(공보)과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정책), 김용정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정부) 등이

핵심이다.

고건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인기 의원과 경기도·서울대 후배인 신중식 의원, 이낙연 의원 등이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안영근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건 총리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 경기도와 서울에 정치학과 동문인 김성곤, 이호웅, 신학용 의원 등도 눈에 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무안기업도시 왜 '반쪽' 전략했나

## 중 출자 지지부진...국내기업 투자 꺼려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단계적 개발'이라는 교육책이 도입된 것은 국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기업도시에 7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던 중국 광화기업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이라는 벽에 부딪혀 출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업의 차질을 초래한 단초가 됐다. 출자금이 확보돼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정부가 출자승인을 해줄 것으로 무안군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투자승인 문제는 국가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실무차원의 확인은 어려운 상태다.

또 국내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측도 다음달 말까지는 출자금을 모두 확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한 달 만에 1천억 원대의 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지정 신청 등 개발 일정 차질

이달 말까지 국내기업으로부터 1천540억원의 출자 받겠다던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역시 출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측은 28일 현재까지 국내 기업으로부터 500억원 안팎의 출자금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의 출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개발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국 광화기업의 경우 오는 11월께에는 중

### 중정부 투자승인 여부 관련

특히 무안기업도시에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그 시점을 '중국기업의 출자 이후'로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정부의 출자 승인 이전에는 국내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무안군 측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최대한 출자금을 확보, 오는 9월 말까지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막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시 작년 예산 2조 4,914억원 집행

## 빛 389억 줄여 9,157억원 행사·축제 경비 크게 늘어

광주시가 28일 '지방재정공시'를 발표해 2005년 한해 동안 집행한 2조4천914억원 규모의 살림 내역을 공개했다.

전체적인 특징은 재정자립도가 56%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채▲민간단체 보조금▲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행사·축제 경비와 연말 지출비율이 증가하는가 하면 일부 공사의 입찰 자격 제한 등 부적절한 재정운영 사례도 드러났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2005년 살림 규모는 2조4천914억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65%인 1조6천135억원으로 지방채가 7천85억원, 세외수입 9천500억원이다. 중앙의 의존재원은 7천250억원으로 전체 살림 규모의 28%, 지방채는 1천754억원으로 7%를 차지했다.

지하철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2005년 말 지방채 규모는 9천919억원에 달했으나 지역개발기금 채무 762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채무는 9천157억원으로 전년보다 389억원이 줄어들었다. 시민 1인당 채무는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줄었다. 이같은 총 채무는 다른 광역시 평균 1조4천501

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재정운용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도 전년보다 71.6% 감소한 22억2천700만원에 불과해 건전성을 확보해 가는 추세다.

하지만 공유재산 규모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등 1천747건, 1천870억원을 취득하고 지하철 역사 등 208건 1천289억원이 감소해 전체 5조657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사·축제 경비는 82억6천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억2천400만원이 늘었다. 시는 디자인비 엔탈페에 40억원을 투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합동 감사·감사원 감사 등에서는 ▲노인간 강문화터온 조성사업 투·융자심사 부적정 ▲각화 2배수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부적정 등 재정 운영과 관련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광주시의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재정운영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 되는 제도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좋은 사람, 좋은 여발 - 신물은 마땅히 값이 세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신발 유통업체들끼리 약속조항!

..... 인기가 좋은 신발은 마땅히 세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

**유서인물**  
사들은 시편과 함께

3,490,000	19%
2,150,000	8%
2,290,000	9%
2,000,000	8%
2,890,000	12%
2,440,000	10%
1,630,000	7%
2,390,000	10%
1,880,000	8%
1,880,000/1,880,000	8%
960,000	4%
1,140,000	5%
840,000	4%
860,000	4%
640,000	3%
440,000	2%
350,000	1%